

보성 산학민관 손 잡고 '키조개 산업화' 박차

보성 산·학·민·관이 손을 잡고 특량만 키조개 수확을 위한 다양한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보성군과 보성혁신주 영어조합법인, 목포대·목원대, 율포·외래·군학 어촌계, 전남도 식품산업연구원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특량만 키조개 다변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3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특량만 키조개사업 다각화로 보성지역의 6차산업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자·조갯살 가공 시장 공략 ▲키조개 폐각·혁신주 주얼리

2015년까지 3개년 계획 관자·폐각 등 신시장 개척 6차 산업화 수익 창출 나서

국내의 시장 개척 ▲키조개 폐각의 산업화 등을 추진한다.

사업화 전략에 따르면 관자, 조갯살, 폐각, 혁신주 등 키조개 부위별로 사업화 안을 따로 세워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전문외식업소, 홈쇼핑, 원료제공, 농협, 주얼리업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자와 조갯살은 가공시장을 공략하고, 키조개 폐각과 혁신주는 국내의 주얼리 시장개척에 나서며, 키조개 폐각의 산업화를 통해 순환 농어업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방안의 핵심 전략이다.

구체적인 사업방안으로는 키조개 녹돈 삼합, 키조개 건관자, 키조개 맛살, 키조개 통조림, 키조개 혁신주 생산, 폐각 주얼리 생산, 폐각 비료화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영어조합법인 수준인 키조개 공동체를 어업법인화해 관련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춰 가공공장을

신축중이다. 건조기와 증숙기, 슬라이스기, 진공포장기 등 설비와 저온냉장고와 냉동고를 갖추게 된다.

군은 키조개 생물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해지고 대량구매에 따른 구매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제조원가도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키조개 생물 구매가를 시중 매입가보다 높여도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저가에 종패를 판매하고 고가에 성패를 매입할 수 있어 어가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군 회천면 119 청사 8개월 공사 끝 준공 개청

보성군 회천면에 119지역대 청사가 준공됐다.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는 지난 10일 이용부 군수와 임명규·임영수 도의원, 회천면장을 비롯한 외부초청인사와 보성군의용소방대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소방서 회천119지역대 신축청사 준공식 행사(사진)를 가졌다.

보성 119안전센터 소속의 회천 119지역대는 보성군 회천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7월에 착공해 올해 3월에 완공됐다.



신축청사는 지상 2층(연면적 795.9㎡) 공간에 사무실과 세면장, 의무소방대원실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회천119지역대는 3명의 소방인력과 펌프차 1대를 갖추고 회천면 지역의 재난을 책임지고 있다.

신봉수 소방서장은 "이번 청사 준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 등 각종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곡성 명품농업대학 벤치마킹 견학

제4기 곡성 명품농업대학 교육생들이 최근 경북권 농산물 중심지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내부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이번 현장교육은 '관능농업품목 농업인연구회' 결성을 앞두고 1박2일간 청도 와인터널 등 경북 안동과 울산 등지에서 우수 관광·체험상품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곡성군 제공>

원조성' 사업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46억원만 반영됐다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1억원이 증액된 77억원을 확보해 2016년에 차질없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게 됐다.

군은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고 건의사업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고흥=주국희기자 gju@

고흥군, 내년 국비확보 2000억원 시대 열어

113건...올보다 52억원 늘려

고흥군이 현안사업 국비확보 2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고흥군은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예산을 2020억원(113건)을 확보해 처음으로 현안사업 국비확보 2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2억원 증가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 면담해 군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얻은 성과이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고흥 담병 분청 문화관 및 공원조성 77억원 ▲고흥 과학

로켓센터 구축 10억원 ▲고흥~봉래간 국도 15호선 건설 34억원 ▲항공센터 비행시험기 기반 확충 40억원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개발 구축 50억원 ▲도양 일 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공용용수도 시설 94억원 ▲전남 중부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5억원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15억원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가설 908억원 ▲고흥 우주랜드 조성 22억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24억원 ▲사양~와교간 연도교 가설 55억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4개 지구) 5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고흥 담병 분청문화관 및 공

과 명협정에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1597년 8월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했던 후 처음 방문한 곳이 구례였다. 명협정은 이순신 장군의 구국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장소로 현재 명랑축제 조선수군 출정 장소이기도 하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복지행정상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 대상 곡성군, 복지부 포상금 1억원 받아

곡성군이 최근 충북 오송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복지행정상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 부문 시상식에서 대상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번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부문은 읍·면사무소의 복지업무 기능강화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자기진짜 시책 추진상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이행상황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와 노력 정도를 평가했다.

곡성군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자기진짜를 위해 복지실장 및 11개 읍·면장을 사회복지직렬도 승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전화상담을 통한 언어폭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복지실 6개팀과 11

개 읍·면 복지팀에 업무용 휴대폰을 배부했으며, 신규채용 복지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을 해왔다.

유근기 군수는 "민선6기 취임사에서 밝힌 '복지 기동서비스 전담팀'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정책 실현이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발맞춰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충무공 충혼 서린 구례 명협정 복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서린 구례 명협정이 복원됐다.

구례군은 '조선수군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난중일기를 토대로 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최근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조선시대 구례현청(현 구례읍사무소) 자리에 명협정을 복원했다.

2층(60㎡) 규모의 명협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자취가 남아있는 정자이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1월 삼도 수군통제사에서 파직돼 백의종군할때 구례에 머무르며 구례현감과 손인필 등 백성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당시 구례현청 동문 밖에 머물며 체찰사 이원익

과 명협정에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1597년 8월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했던 후 처음 방문한 곳이 구례였다. 명협정은 이순신 장군의 구국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장소로 현재 명랑축제 조선수군 출정 장소이기도 하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구례 농기센터 압화아카데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구례군인 압화(押花)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9일 군 농업기술센터 압화예술 전문가 양성 과정인 압화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2008년 군이 개설한 압화 아카데미 과정에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 490명이 수료했다. 올해는 2월부터 11월까지

4개 과정에 110명이 신청해 과정별 10회 교육을 마치고 105명(기반반 29명, 고급반 15명, 상품반 25명, 천연향상품반 36명)이 수료했다.

서기동 군수는 "압화예술이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압화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과 역량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들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용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접,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함,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담900평 생산농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